

깃발 (유치환)

떨어져도 튼는 공처럼 (정현중)

해 (박두진)

동서남북 (김광규)

청포도 (이육사)

오우가 (윤선도)

호박꽃 바라보며 (정완영)

단심가 (정몽주)

깃발

유치환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꾀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떨어져도 튜는 공처럼

정현종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튜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해

박두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앓던 얼굴 고운 해
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
이 나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
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따라 취범을 따라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앓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동서남북

김광규

봄에는 연록색 물결 북쪽으로
북쪽으로 퍼져 올라간다
철조망도 군사분계선도 거리낌없이
복상한다
산맥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진달래도 개나리도 월북한다
여름이면 빠꾸기 노래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어디서나 똑같다
가을에는 황금빛 물결 남쪽으로
남쪽으로 퍼져 내려온다

비무장 지대도 민통선도 거리낌없이
남하한다
강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서
코스모스 단풍도 월남한다
겨울이면 시원한 동치미 맛
얼큰한 해장국 맛
어디서나 똑같다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하나로
하얗게 뒤덮는 눈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오우가

윤선도

내 버디 벗치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의 들 오르니 기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솜 밋기 쏘 더하야 머엇하리.

구름 비치 조타 하나 검기를 즈로 한다.
벼람 소리 몹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론인가 하노라.

고즌 므스 일로 뛰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하야 프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곳 취고 치우면 뉘 디거늘,
술아 너는 언디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에 불휘 고든 줄을 글로 하야 아노라.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꽃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영는다.
더러코 사시에 프르니 그를 도아하노라.

자근 거시 노피 썬서 만물을 다 비취니,
방둑의 광명이 너만하니 쏘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변인가 하노라.

호박꽃 바라보며

정완영

분단장 모른 꽃이, 몸단장도 모른 꽃이
한 여름 내도록을 뒤흔들며 타던 꽃이
이 세상 젤 큰 열매 물려주고 갔습니다.

단심가

정몽주

此身死了死了	(차신사료사료)
一百番更死了	(일백번갱사료)
白骨爲塵土	(백골위진토)
魂魄有也無	(혼백유야무)
向主一片丹心	(향주일편단심)
寧有改理與之	(영유개리여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